

Session 06 하나님의 충만하심 : 하늘과 땅의 하나 됨 (Fullness of God : Heaven and Earth Brought Together)

I. 하나님의 목적 :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심

그 뜻의 비밀(감추어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9-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간직하리라) (행 3:20-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 17:11)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 5 ...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아버지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계획)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엡 3:3-10)

- A. 하나님께서는 왜 천년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이며, 우리는 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 B.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계획)들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특정한 일들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박스에 그려진 큰 그림을 보며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C.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묶으심으로 온 땅에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오셨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근본이 되는 이 계시가 없을 경우,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는 혼란을 겪게 된다.
- D. **하늘(Heaven)**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영계)을 말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곳을 말한다. 이곳은 천사들의 영역을 포함하며, 성도들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임시적인 형

태”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재림까지 2,000여년) 있게 되는 곳이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육체를 가지고 주변 하늘(Heaven) 환경과 관계할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 E. 땅(Earth)은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자연계)을 말하며, 인간의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천년 왕국의 땅(Millennial earth)과 새 땅(New Earth)은 물리적인 실제로 구성될 것이다. 성도들이 땅이라는 환경에서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귀신들(Demons)은 더욱 활동하기 위해 인간을 소유하기를(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 (마 12:43-44)

- F. 천년 왕국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이 역동적으로 함께 작동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이지만 영적인 몸을 예비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충만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체의 몸을 입으시고 먹고 마시심으로, 부활이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게 됨을 보이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Heavenly kingdom)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딤후 4:18)

- G. 때가 충만하게 이르면, 예수님께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다면적이며 온전하신 지혜(계획)를 보이시고 알게 하심으로, 각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나가게 될 것이다.

- H. 구약에서 사람들은 인류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이 땅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리라고 믿었다.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 많은 하늘의 측면들을 풀어놓게 될 것이다.

II.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 근거가 되는 말씀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8-19)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5)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

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적 그리스도)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4-6)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11)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 102:15)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시 138:4)

III. Session 6-9에 대한 요약

A.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시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들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다.

그 뜻의 비밀(감춰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B.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지구의 바로 위로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게 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부분적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의 두 번째 단계는 천년 왕국 이후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부분이다.

C.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즉 이 땅에 다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와 있게 되는 이유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다(계 21:24). 두 번째로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의 소성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다(계 22:2). 세 번째로 죄인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천사들이 막는 부분이다(계 21:12, 22:14-15; 창 3:22-24).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지구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라들을 제외한 구원받은 나라들을 비추게 되는 부분이다(계 21:24; 20:7-9). 다섯 번째로,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대략 $25km^2$ 정도의 크기이며(4,500척 x 4,500척)(겔 48:30-35; 45:6; 48:15-19)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1,500마일(2,400km) 정도이다.

D.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마 25:31; 렘 3:17; 겔 43:4-7; 속 6:12-13). 천년 왕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도 존재하게 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땅과 하늘의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는 두 예루살렘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계 22:3).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마 19:28; 눅 22:29). 그러나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통치는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 E. 땅에서의 예수님의 보좌와,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보좌는 명백히 하나의 보좌이다. **두 예루살렘의 하나 됨을 위해 “영광의 통로(Corridor of Glory)”가 세워지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12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역동적으로 하나로 수렴(converge)하게 된다**(여기서 수렴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합치점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수렴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영역(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연합된 실체가 되는 명백하게 하나가 되면서 서로 겹쳐지게 되는, 모순되는 듯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F.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의 12가지 중요한 측면들은 1) 산 2) 예루살렘 도시(12개의 문을 가진) 3) 하나님의 전(God's House,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곳, 계 21:1-8) 4) 지성소들(성전들) 5) 에덴 동산(실제적인 천국) 6) 치유하는 강, 7) 나무들(12가지 실과들이 달마다 맺히는), 8) 대로, 9) 회오리바람(토네이도와 같은 영광의 통로), 10) 구름 기둥, 11) 향연(향이 나는 연기), 12) 빛나는 불(예루살렘을 둘러싸는)이 그것이다.**
- G. 우리는 하나님의 전의 산-도성인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또한 (12개의 문을 가진)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산, 두 개의 지성소(성전들), 두 개의 동산들(에덴 동산), 두 개의 강들, 두 개의 나무들, 두 개의 대로들을 포함한 두 영역(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수렴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H. 우리는 이사야에 의해 묘사된 **연기와 빛나는 불과 구름**(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아있는 영광의 기둥)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통로(회랑, Corridor)”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에스겔에 의해서는 이 “통로”는 **회오리바람**(whirlwind, 예수님의 전차-보좌를 감싸고 있는 광대한 영광의 토네이도 통로, 겔 1장)으로 묘사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 통로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의 지구상에 있는 그분의 성전을 연결하는 엄청나게 큰 “하늘의 엘리베이터”로 묘사했다.
- I. 회오리바람, 영광의 구름 기둥, 향연 그리고 빛나는 불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새 예루살렘)을 천년 왕국의 땅에 있는 그분의 성전과 연결하며, 땅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를 세우게 된다(사 66:1; 11:10; 시 132:7-14).
- J. 새 예루살렘(하늘의 성전)은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천년 왕국 시온 산의 성전)의 바로 위로 내려오게 된다. 즉,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산-도성-전, Mountain-City-House) 또는 그분의 광대한 통치 단지는 천년 왕국 성전과 새 예루살렘 둘 다를 포함하며, 이 둘은 영광의 구름과 연기와 불기둥이 회오리바람처럼 예수님의 전차-보좌(Chariot-Throne, 겔 1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영광의 통로”로 연결된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땅에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Resting Place) 또는 그분의 발등상(사 66:1; 11:10)이 된다.
- K.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경 말씀

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 아래에 있는 시온과 위에 있는 시온(고후 12:2에서는 셋째 하늘로 불리고 있으며, 히 13:14에서는 영구한 도성으로 불리고 있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 4:26)

...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 (고후 1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 12:22.23)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 13:14)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 11:10)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6)

IV. 마지막 때에 대해 이해하기 :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 A.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며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신 것은 사복음서에 잘 드러나 있다(총 89개장)
- B.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 때에, 그분의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세우시며 보이실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들은 마지막 때가 주요 주제인 100개가 넘는 장들에 기록되어 있다.¹⁾

V. 하늘과 땅 - 정의(Definition)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 A.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늘과 땅(천지)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것인데,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이 이 두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때가 찬 경륜에(충만한 때에) 두 영역이 하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엡 1:10).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길 원하시는(계 21:1-8)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에 있어서 주요 핵심이 된다.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과 자연계의 영역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아담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거니셨다.
- B.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주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창조하셨다. 물질적인 세계(자연계)는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히 11:3).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

1) 역자주 :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mikebickle.org 또는 드보라 하우스 출판사) 참조

타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1. **하늘** :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영역 - 초월적이며 거룩한 능력과 임재가 있는 곳
2. **땅** :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적인 영역 - 인간의 감성과 물리적인 감각이 있는 곳. 천년 왕국의 땅과 새 땅(New Earth)은 물리적인 실제로 구성될 것이다. 땅과 하늘의 영역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을 필요로 한다.**
3.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아무 할 일 없이 하늘에서 떠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그의 충만하심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몸을 예비하셨다.
4.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먹고 마시심으로, 부활이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인 것임을 보이신다. 성도들이 죽었을 때 육신이 없이 하늘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육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천년 왕국의 땅 위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5. **인자(Son of Man)** -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골 1:16)이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다른 호칭보다 대부분 이 호칭을 사용하셨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흠으로 지어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롬 8:3)을 가지신 그의 인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 하나님은 하시나니 ...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 (롬 8:3)

- a. 열방의 왕으로서 관 쓰시는 예수님은 인자로서 나타나신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예수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아버지)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 (단 7:13-14)

- b. 에스겔은 하늘에서의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진 구약의 선지자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지칭할 때는 흠으로 만들어진 그의 인성에 대해 드러내기 위해 “인자(son of man)”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 대해 인자라는 표현을 93번이나 사용하셨다.
- c. 여기서의 주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땅에 대해 깊이 헌신되어 계신다는 사실이다.

- C.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며 육신을 입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또는 영의 세계에 계신다(요 5:3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6-7)

VI.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됨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 (계 21:2)

...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 (계 3:12)

- A.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며, 두 개의 예루살렘은 연결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스리시며(새 예루살렘), 땅에서 다윗의 아들로써 다스리신다(땅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서는 두 개의 영역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마 28:18). 하늘과 땅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 B. 예수님께서서는 두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땅으로 내려오게 됨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에 충만함을 가져오신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연합하실 것이다.
- C.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구심점은 인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통로로 선택하신 대상은, 그분 자신의 형상인 동시에 성령으로 가득 찬 인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그분의 신부(구원받은 인류)를 통해 풀어놓으시는 근본적인 연결점이 되신다.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신부)는 이 영광스런 계획안에 완벽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사 61:3; 시 90:17) 예수님께서서는 두 영역이 하나 되게 하는 연결점이 되시며, 이 하나의 실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문화 명령(창 1:28)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의 부분만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축소해버리면 안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용서하심과 의를 선물로써 받는다는 사실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총체적인 리더십을 가지시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기쁜 소식을 말한다.

나दान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인간) ...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1:49-51)

- D. 천년 왕국 성전은 이사야 6:1-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사야가 마주치게 되는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한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통로로 선택하신 대상은 그분의 형상이자 성령으로 가득 찬 인류이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구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모든 인류에 대해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 E.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곳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곳이

다. 영적 전쟁의 모든 핵심은 이 전쟁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테러가 집중되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게 될 판결을 내리는 보좌(계 20:1-10)는 예루살렘에 있게 되며 인간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된다.

VII. 두 영역 : 예수님의 왕권 아래 4가지 부분이 하나로 수렴됨

- A. **두 영역** :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밝히 드러나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영역을 말하며 천사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며 새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한다. **땅**은 인간의 감정들과 물리적인 감각이 충만하게 표현되는, 물질로 구성된 물리적인 영역을 말한다.
- B. **예수님의 보좌** -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스리시며(새 예루살렘),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스리신다(땅의 예루살렘). 그분께서는 두 영역을 하나로 맺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마 28:18). **하늘과 땅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계 3:21),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의와 공의로써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의 세상에 대해 인간이 자 왕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 C. **예루살렘 도성** - 예수님께서서는 **두 예루살렘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충만함을 하나로 합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온 땅과 온 우주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광대한 통치 단지를 형성하실 것이다. 이 두 예루살렘은 **“땅의 부활이 일어나면서”**(롬 8:17-23; 11:15; 사 11:6-9; 35:1-8; 65:17-25) 하나가 된다. 두 예루살렘은 모두 주야로 닫히지 않는 성문이 있다(계 21:25; 사 60:11-12; 시 24:7).
- D. **에덴 동산** - 기쁨으로 가득 찬 실질적인 천국이 천년 왕국의 땅과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완전하게 회복되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 E. **지성소(성전)** - 이 장소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역하며 예배하는 신부들인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의 안식처로 삼을 곳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위에 있는 성전 또는 위에 있는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이며, 도성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된다(계 21:10, 16:17). 이 도성은 빛을 발하는 벽옥(jasper stone) 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는데, 이것은 온 도성을 통해 나타나는 쉼키나 영광(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말하며, 이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가 되도록 한다.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겔 40-48장), 아래의 지성소 또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는 하나의 지성소를 말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지성소를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산 한 가운데에 있는 광대한 하나의 실재이자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역동적으로 수렴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 F. **정리** : (치유하는 초자연적인 과실을 맺는 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강이 있는)동산은 도성을 둘러싸고 있으며, 도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보좌가 있다.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은 하나로 맺어짐을 통해, 이 네 가지 영역들은 “영광의 통로”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로 수렴된다.

G. 부가 설명 :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두 예루살렘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전인, 큰 산으로 된 도성(Great Mountain City)이다. 이곳에는 두 예루살렘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내가 부르는) 영광의 통로가 있게 된다. 이 두 예루살렘은 그분의 보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산으로 된 도성이 되며, 부활체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 “영광의 통로”는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영광의 구름)의 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광대한 통치 단지가 있는 곳이며, 이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 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를 이루게 된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문화 명령(창 1:28)을 이루시는 중심이자 근원이 되는 곳이다. 이는 두 지성소, 두 동산, 두 강, 두 개의 나무, 두 대로가 수렴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대로가 수렴된 것은 거룩한 길(사 35:8)로 불린다. 이는 매우 복잡한 대로 시스템이 되는데, 하나의 대로는 열방에서 천년 왕국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며, 또 하나의 대로는 천년 왕국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끈다. 이 대로는 열방의 백성들을 영광의 통로를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와 산을 오르게 되며, 오직 정결함 가운데에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어떤 왕들은 내내 깨끗함을 입지 않을 것이다.

VIII.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1:19-20; 2:9-10)

A.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엡 1:22-23; 3:19; 4:13; 골 1:19-20; 2:9-10; 요 1:16; 롬 11:12,15),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자원하여 사랑과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들을 충만하게 드러낼 것이다.

B.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 하늘에서의 일만을 바라볼 뿐,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 측면들이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의 땅과 새 땅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실체로 구성될 것이다. 즉, 이들은 물리적인 재료들(나무, 강철, 시멘트, 음식, 동물 등)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적인 현실과 함께 초자연적인 웅장함(새 예루살렘)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회자되는 “**젊음의 샘**”의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재가 될 것이다.

- C. 4가지 부분과 함께 이 두 영역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로 맺어져야 한다 (계 21-22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목적들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 하나로 맺어지기를 원하신다.
- D.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교회를 땅과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풀어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

또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2-2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 16:3)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하늘과 땅의 소유주, 한글 KJV)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4:18-15:1)

- E.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행하시는 이유

금흠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4-7)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8)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3-7)